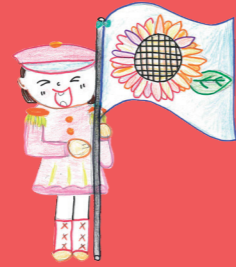


人
스토리
서른 세 번째
김은실



나는 포기하지 않았다

이야기·그리기: 김은실 듣고 쓰기: 김가영·이시현

지난 시절 내가 가졌던 꿈은
서른 사랑과 같았다.
내가 원하는 것 보다는
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
선택의 연속이었다.
나의 미래보단 가족의 미래가 우선이었고,
나의 행복보단 아이들과 함께 하는게
우선이었다.



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인스토리 서른 세 번째 김은실

너는 포기하지 않았냐

이야기·그리기: 김은실 듣고 쓰기: 김가영·이시현





소독약 냄새, 하얀 천장, 달달거리는 침상의 바퀴 소리가 나를 수술실로 안내한다. 귓가를 맴도는 기계음, 나는 이제 손을 댄 것이다. 무얼까 없다. 나는 잠시 몸을 세고 일어나는 것. 그뿐이다. 무섭지 않다.

“정부가 살아야 우리들끼로... 꼭 살아야 끝...”

전원이 피노키오로 지나간다고 해 바버블, 톰, 마이클, 내 말엔더 자리는 무엇일까?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법이나 바버블의 언 또 아이들을 생각한다. 바버블의 자리에 수감되어 함께 할까?

어느 때처럼 나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등교한다.
 [날 좀더 잘 생기고 싶어]지만, 나는 [남에 잘 누
 구]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. 아버지는
 언제든 나에게서 아쉬움을 찾아주었다. 나쁜 말
 도 하지려고 할 때면, 바쁜 일로 나누어줄 때였고,
 하고 싶은 것이라면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며 마음
 껏 할 수 있었다. 그 덕분에 나는 꿈을 가질 수 있
 었다. 그 꿈이란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차로
 횡단을 하며 무릎 꿇고 인사하는 일을 했었다. 하지만
 그런 일이 생각지도 못했다. 많이 그릇된 사람이
 될 거라곤.



꿈을 향해 다니던 친구의 부탁으로 다른 일을 하고
 있을 때 만나게 되고 만났어. 아버지가 귀찮아
 수 있고, 마음에는 잘난 척이고 생각했다. 나는 왜
 그해 인사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. 출근하기 전 어
 머리가 너무 멍멍했던 탓일까. 아니, 사람이 정말
 매섭게 위독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탓일까.
 눈앞에서 일어나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. 공업
 을 하기 위해 무릎 꿇고 인사하니 많이 모르는
 코치의 메시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. 그렇게 참
 겠다 싶으로 돌아왔다.

배정해줬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듯했다. 잘
 되었다. 코치의 나이, 사랑하는 딸의 말과 [주]를
 안아줬다. 아버지 손에는 배가 풀 면받아 손에 거
 없다. 아무것도 못했었고, 힘들었던 순간. 나는 그
 별편도 아랑곳없이 아버지의 일흔을 지키지 못했다.